

##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 정책

전 용 덕\*

< 目 次 >

- |                   |                 |
|-------------------|-----------------|
| I. 서 론            | III. 경쟁 정책      |
| II.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 | 1. 각종 진입 장벽 제거  |
| 1. 세가지 견해         | 2. 자유무역         |
| 2. 독점의 후생손실에 대하여  | 3. 민영화          |
| 3. 정책적 시사점        | 4. 비자발적 카르텔의 금지 |
|                   | IV. 결 론         |

### 요약문

모든 종류의 정부 제한은 독점적이다. 그 결과 자유 시장에서 나올 결과와 비교한다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감소시킨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이론, 특히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만이 가장 이론적 결점이 없는 것이다. 그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카르텔만 금지하고 각종 진입 장벽과 보호 무역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허가, 인가 등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경쟁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규제 철폐, 자유 무역, 민영화 등이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과 가장 잘 합치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I. 서 론

한동안 그 맥이 끊어졌다고 여겨졌거나, 신고전학파에 흡수되었다고 주장되었던, 오스트리아 학파는 후학들의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류 경제학에 도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멩거(Menger)가 한계 혁명으로 경제학을 과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면, 이후의 후학들은 여러 분야에서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거센 도전을 하고 있다.<sup>1)</sup> 특히 경쟁과 독점에 대한 도전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흥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독점 이론에 따라 경쟁 정책 또는 반독점 정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독점 이론과 너무 달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스(Mises), 커즈너(Kirzner), 라스바드(Rothbard)의 독점 이론을 서술하고, 그들간의 관계나 논리적 모순점을 파악하며, 그것을 토대로 경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에 관한 견해를 고찰하고 그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절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 그 중에서도 라스바드의 견해를 중심으로 경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

이 절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을 미세스, 커즈너, 라스바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것의 논리적 또는 개념적 모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고전학파의 독점 후생 손실에 대한 라스바드의 비판을 서술하고자 한다.

### 1. 세 가지 견해

#### (1) 미세스의 독점이론

미세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독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품의 모든 공급이

---

1) 반트러스트 정책 제안에 있어서 하버드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매우 달랐다. 그러나 그 두 학파가 완전 경쟁 모형을 후생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적하고 있다. 아래에서 신고전학파라 함은 하버드 학파와 시카고 학파를 모두 포함한다.

한 사람의 판매자나 공동으로 행동하는 판매자 그룹에 의해 통제될 때 독점이 가능하다고 한다.<sup>2)</sup> 그러나 미제스는 경쟁 가격보다 높은 독점 가격은 공급의 제한을 통해 독점자의 총순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때만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점 가격은 문제의 재화의 수요가 논의하고 있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비탄력적일 때만 경쟁 가격과 구분된다.

미제스는 대부분의 독점과 그에 따른 독점 가격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 자유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관세나 인·허가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이 없는 경우에도 독점과 독점 가격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지리적 독점(geographic monopoly), 공간이 제약된 독점(limited-space monopoly), 소비자의 과거 경험에 의한 충성심으로 인한 독점이 그러한 예이다.

결국 미제스는 독점 가격 즉 경쟁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독점자로 규정한다.

## (2) 커즈너의 독점이론

커즈너는 독점을 자원의 배타적인 소유나 통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리고 그러한 소유나 통제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다. 예를 들면 오렌지를 구할 수 없다면 오렌지 주스의 생산은 막혀있다는 것이다. 커즈너는 자기 분야에 들어오려는 다른 사업가의 경쟁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경쟁 과정 자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독점자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3) 라스바드의 독점이론

라스바드는 독점의 정의를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라스바드는 세 가지 종류의 독점에 관한 정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신고전학파의 것으로 어떤 재화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판매자를 독점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비록 독점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정통적이지만 비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두 상품을 소비자가 다르게 인식한다면 다른 종류의 것이 되고 그것은 정상의 독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독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인

2) 미제스의 견해에 대하여 Mises (1996)의 357-379쪽을 참고.

3) 커즈너의 견해에 대하여 Kirzner (1973)의 1장과 3장을 참고.

4) 라스바드의 견해에 대하여는 Rothbard (1993)의 10장을 참고.

식의 차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독점이 존재하게 된다. 즉, 독점의 이러한 정의는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게 된다. 독점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독점을 국가가 부여한 특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허가를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는 경우에 그러한 허가를 독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면 정부에 의한 허가나 인가, 국내의 쿼터, 각종 법적 장벽이 독점력의 원천이 된다.<sup>5)</sup> 이러한 정의는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 정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문제가 없다.<sup>6)</sup>

그러면 카르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카르텔은 반사회적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즉 카르텔은 생산을 제한한다고 종종 주장되어진다. 라스바드는 카르텔이 다만 한 조합의 생산(one combination of production)으로부터 다른 조합의 생산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적에 비해서 수단인 자원이 부족한 현실 세계에서 재화의 생산이 항상 제한되게 되어 있다.

카르텔은 담합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카르텔과 주식 회사 또는 합작 기업과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카르텔은 생산자가 협력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협력 행위라고 주장한다.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카르텔과 주식 회사 또는 합작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도 카르텔을 만들고자하는 노력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산 소유자의 자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되어진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그러한 주장은 자유 경쟁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경쟁이란 자신의 자산을 사고, 팔고, 변형시키는 일에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거 폭력적인 개입이 없는 것

- 5) 또한 최근 신고전학파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독점의 원천으로서 비법적 장벽(nonlegal barriers to entry)을 제시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한 장벽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이다. 이것들은 기존의 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신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기호가 동일해서 동일한 제품만을 구매한다면 신규 기업은 기존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제품 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자 독점의 원천이 될 수 없다.
- 6) 신고전학파에 속하면서 시카고 학파의 일원으로 불리어지는 Demsetz (1988)도 라스바드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독점의 궁극적 원천은 정부뿐이다. 다른 모든 거래 행위는 우리가 모르는 감추어진 효율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라스바드는 독점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을 말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 경쟁의 의미다. 그러므로 카르텔은 그것이 자발적인 한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협력적 행위이고 자유 경쟁 행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다만 카르텔이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외부적인 힘에 의한 카르텔의 결성으로 앞에서 말한 자유 경쟁과 배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카르텔은 자발적인 한 자유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비자발적인 카르텔은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카르텔 자체가 독점의 원천이라고 하겠다.

독점에 관한 세 번째 정의는 미체스의 것으로 앞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의 문제점은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 (4) 오스트리아학파의 독점관에 대한 회고<sup>7)</sup>

미체스는 독점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독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그의 제자 라스바드에 의해 반박 당한다. 시장에서 누구도 사전적으로 수요를 알 수는 없다.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공급자가 수요를 사전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수요의 크기 즉 수요의 기울기를 안다면 그가 독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까지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 시장에서 개념적으로 독점 가격과 자유 시장 경쟁 가격(free-market competitive price)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공급의 변동을 전후한 가격은 모두 자유 시장 가격이다.

커즈너의 독점 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중 중요한 것 두 개만 보기로 한다. 먼저 모든 자원은 지리적으로 차별화 되어있고 잠재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심지어 같은 자원도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 결국 소유 자원의 매 단위마다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독점을 이렇게 정의하면 라스바드의 주장처럼 독점을 비실용적이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정의는 비실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터무니없다. 다음으로 만약 모든 자원이 독점적으로 소유된다면 경쟁이나 시장 과정을 통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커즈너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그는 비록 자원이 독점적으로 소유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가의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 과정 자체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7) 이 부분에 대하여는 Armentano (1978)를 참고.

## 2. 독점의 후생손실에 대하여<sup>8)</sup>

신고전학파에서 독점자는 문제의 재화에 대한 시장의 모든 수요에 직면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적일 때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적은 양의 산출물을 생산하고, 높은 평균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러한 비난은 완전 경쟁 모형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완전 경쟁 모형은 정태적인 세계(static world)에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이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정태적인 세계에서만 유용하다. 완전 경쟁 모형은 현실의 시장 상황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는 데 그것은 독점을 포함한 현실 세계는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dynamic)이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 경쟁 모형은 완전 정보(perfect information) 또는 완전 예측(perfect foresight)을 가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완전 정보나 예측은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은 비교를 위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완전 정보라는 가정은 그 자체가 경쟁을 제거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다 안다면 경쟁할 필요도 의욕도 없을 것이다. 완전 정보를 가정한다는 것은 완전 경쟁 모형에서 경쟁을 제거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완전 경쟁 모형의 이론적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완전 경쟁 모형은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독점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라스바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sup>9)</sup> 독점이 후생 손실을 가져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하여 라스바드는 소비자나 소비자의 후생이 손실을 입는다고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요의 비탄력성은 순수히 소비자의 자발적인 수요의 결과이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도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거래에서 후생의 손실이 있을 수는 없다.

## 3. 정책적 시사점

위의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에 대한 정의와 독점의 후생 손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할 수 있다. 독점의 원천은 정부의 각종 인·허가, 국내외 쿼

8) 각주 7과 동일.

9) 신고전학파의 독점의 후생 손실에 대한 비난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라스바드의 주장은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의 극적인 변화다.

터, 각종 법적 장벽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각종 진입 장벽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입 규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그 자체가 규제로서 경쟁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기업도 해당 기업에게 정부가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공기업 자체가 독점이라고 하겠다. 비자발적 카르텔은 강제에 의한 것으로 자유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진입 장벽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만 독점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sup>10)</sup>

### Ⅲ. 경쟁 정책<sup>11)</sup>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이론으로부터 경쟁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sup>12)</sup> 오스트리아 학파에 있어서 독점이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수여한 특권을 말한다고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은 먼저 독점의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 또는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독점의 원천을 서술하고자 한다. 독점의 모든 원천을 다 찾아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은 원천을 찾고자 한다.

#### 1. 각종 진입 장벽 제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각종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훌륭한 경쟁 정책이다. 진입 장벽은 매우 다양하다. 정부의 허가에 의한 노조의 설립, 의대와 치대의 정원규제, 교육부의 각종 학교 정원의 규제, 개인택시 면허제, 영업용 택시 허가제, 버스노선 허가제, 수도사업 허가제, 전기사업 허가제, KS마크, 토지거래 허가제, 각종 공장 설립 허가제 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쟁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규제의 일종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sup>13)</sup>

10) 카르텔은 현실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그 점에서 비자발적 카르텔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비자발적 카르텔은 대부분 정부의 보호에 의해 존립 가능하다.

11) 독점 이론만으로도 경쟁 정책 또는 반독점 정책을 유도할 수 있지만 경쟁을 이해하는 일도 경쟁 정책의 유도에 도움이 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쟁 개념에 대하여는 Hayek (1948)을 참고.

12) 비록 이론의 전개 과정은 다르지만 시카고 학파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쟁 정책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시카고 학파의 반트러스트 정책 또는 경쟁 촉진 정책은 Bork (1978), Demsetz (1988), McGee (1988), Stigler (1968) 등을 참고.

13) 공정거래법의 비판에 대하여 이승철 (1997), 전용덕 (1997) 등을 참고.

## 2. 자유 무역

대외적으로 진입 장벽은 관세 또는 비관세의 무역 장벽이다. 두 종류의 무역 장벽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종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 즉 자유 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경쟁 정책이 되겠다.

## 3. 민영화

정부에 의한 공기업도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길이다.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그 분야의 진입장벽이 없어야 할 것이다.

## 4. 비자발적 카르텔의 금지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에서 자발적 카르텔은 문제가 없다. 다만 비자발적 카르텔은 자유 경쟁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자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가 만든 규칙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비자발적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카르텔은 정부의 보호가 없다면 장기간 존속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장기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카르텔의 궁극적 보호막은 다름 아닌 정부이다. 그러므로 비자발적 카르텔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바로 정부의 보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은 정부의 보호 행위를 제거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 IV. 결 론

모든 종류의 정부의 제한은 독점적이다. 그 결과 자유 시장에서 나올 결과와 비교한다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감소시킨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 이론, 특히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만이 가장 이론적 결점이 없는 것이다. 그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였다. 특히 비자발적 카르텔만 금지하고 각종 진입 장벽과 보호 무역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경쟁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규제 철폐, 자유 무역, 민영화 등이 라스바드의 독점 이론과 가장 잘 합치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참 고 문 헌

- 1) 이승철, “공정거래법의 경제 분석,” 김정호 편, 「한국법의 경제학I」, 한국경제연구원, 1997.
- 2) 전용덕, 「공정거래법의 모순」, 자유기업센터, 1997.
- 3) Armentano, D. T., “A Critique of Neoclassical and Austrian Monopoly Theory,” in ed. Spadaro, Louis M., *New Directions in Austrian Economics*, Kansas, Sheed Andrews and Mcmeel, Inc., 1978.
- 4) Bork, R., *The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8.
- 5) Demsetz, H., *Ownership, Control, and the Firm*, vol. 1, Cambridge, Basil Blackwell Inc., 1988.
- 6) Hayek, Friedrich, “The Meaning of Competitio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7) Kirzner, Israel M., *Competition &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8) McGee, J., *Industrial organization*, Englewoo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1988.
- 9) Mises, von Ludwig, *Human Action*, San Francisco, Fox & Wilkes, 1996.
- 10)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Alabam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
- 11) Stigler, G. J.,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